

정진

제 1 장 깨달음의 길

제 1 절 마음을 청정하게 하다

1. 사람에게에는 미혹과 괴로움의 근본인 번뇌가 있다. 이 번뇌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면 다섯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째, 사물을 올바르게 보고, 그 원인과 결과를 잘 가린다. 모든 괴로움의 근본은 마음속의 번뇌이기 때문에 그 번뇌가 없어지면, 괴로움이 없는 경지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잘못된 견해 때문에 자아라는 생각과 인과의 법칙을 무시하는 생각이 생겨서 잘못된 견해에 빠져 번뇌를 일으키고 미혹되어 괴로워하게 된다.

둘째, 욕망을 억누르고 억제함으로써 번뇌를 가라 앉힌다. 밝은 마음에 의하여 눈, 귀, 코, 혀, 몸, 뜻의 여섯 군데에 일어나는 욕망을 억제하여 번뇌가 일어나는 근원을 끊어버린다.

셋째, 물건을 쓸 때에 생각을 바르게 한다. 옷이나 음식물을 쓰는 것을 향락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옷은 덮고 추운

것을 막고 수치를 가리기 위함이며, 먹는 것은 도를 닦는 근본이 되는 몸을 보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바른 생각 때문에 번뇌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넷째, 무슨 일이나 인내하는 일이다. 추위, 더위, 배고픔, 갈증을 참고 견디어 매도나 비방을 받아도 참고 견딘다. 이 인내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몸을 태워 없애는 번뇌의 불은 타오르지 않게 된다.

다섯째, 가서는 안될 곳, 어울려서는 안될 벗은 멀리한다. 이렇게 하면 번뇌의 불꽃은 꺼져버리는 것이다.

2. 세상에는 오욕이 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맛보는 맛, 몸에 닿는 느낌 이 다섯 가지를 기분 좋게 그리고 즐겁게 느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육체의 즐거움에 마음이 끌려,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재앙은 보지 않는다. 이것은 꼭 숲속의 사슴이 사냥꾼의 함정에 빠져 잡혀듯이 악마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린 것이다. 그야말로 이 오욕은 함정이며, 사람들은 이것에 걸려 번

깨달음의 길

뇌를 일으키고 괴로워 한다. 그러므로 이 오욕의 재난을 보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3. 그 방법은 한 가지만은 아니다. 이를테면 뱀과 악어, 새와 개, 여우와 원숭이 같은 그 습성을 달리하는 여섯 가지 동물을 잡아서 새끼줄로 묶어 그 줄들을 서로 묶어 놓아준다고 하자.

이 때에 여섯 가지 동물들은 그 나뉠대로의 습성에 따라 각각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려 한다. 뱀은 굴로, 악어는 물속으로, 새는 하늘로, 개는 마을로, 여우는 들로, 원숭이는 숲속으로 제 각기 갈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힘이 센 쪽으로 끌려간다.

마치 이 비유처럼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맛본 맛, 몸에 닿는 느낌, 뜻으로 생각하는 것 등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센 유혹쪽으로 끌려가 그 지배를 받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여섯 가지 동물들을 새끼줄로 묶어 그것을 튼튼한 기둥에 매어 둔다고 하자. 처음에는 그 동물들은 서로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가려고 하나, 드디어 힘이 빠져 그 기둥 옆에 지쳐서 눕게 된다.

이와 같이 만약에 사람이 그 마음을 닦고, 그 마음을 단련해 두면 다른 오욕에 끌려가지 않는다. 만일 마음이 제어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행복을 얻을 것이다.

4. 사람들은 욕망의 불이 타는대로 화려한 명성을 구한다. 그것은 마치 향이 향대를 풍기며 스스로 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 부질없이 명성을 구하고, 명예를 탐내고, 도를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몸은 위태롭고 마음은 뉘우침에 괴로워 할 것이다.

명예와 재물과 색향을 탐내는 것은 꼭 어린아이가 칼날에 발라진 꿀을 핥는 것과 같다. 달콤한 맛에 취해 있을 때, 혀를 베게 되는 위험을 당하게 된다. 애욕을 탐내어 만족을 모르는 자는 헛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다. 손을 데이고 몸을 데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 가지 독에 넘쳐있는 자신의 마음을 믿어서는 안된다. 자기의 마음을 아무렇게나 해서 안된다. 마음을 눌러 욕망에 기울지 않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깨달음의 길

다.

5. 깨달음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자는 욕망의 불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안된다. 마른 풀을 쫓아진 자가 들불을 보고 피하듯이 깨달음의 길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이 욕망의 불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아름다운 이성을 보고 그것에 마음이 쏠릴 것이 두려워 눈을 도려 파내려는 자는 어리석다. 마음이 주인인 까닭에 사악한 마음을 끊으면, 중에 불과한 눈의 끌림은 곧 멈춘다.

도를 구하기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도를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더욱 괴롭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 고통은 끝이 없다.

도를 구해가는 것은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깊은 진흙 속을 갈 때에 아무리 지쳐도 옆눈을 팔지 않고 앞으로 나가다가 그 진흙 속을 벗어나서야 한숨을 내리쉬는 것과 같지 않으면 안된다. 욕망의 진흙은 더욱 깊으나 마음을 바르게 하여 도를 구해가면, 진흙 속을 떠나게 되며 고통은 없어질 것이다.

6. 도를 구해가는 사람은 마음의 오만을 없애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빛으로 몸을 치장해야 한다. 어떠한 금은보화의 장식도 지혜와 덕으로 장식한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몸을 건강히 하고, 한 가정을 번영시켜서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려면, 우선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된다. 마음을 가다듬으면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지혜와 덕은 스스로 그 몸에 배인다.

보석은 땅에서 나오며, 덕은 선으로부터 나타나며 지혜는 고요하고 맑은 마음으로부터 생긴다. 광야와 같이 넓은 인생의 미로를 살아가려면, 이 지혜의 벼에 의지하여 가야할 길을 비추고 덕의 장식품으로써 몸을 주의해가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버리라고 설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훌륭한 가르침이며, 그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은 좋은 생활과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7. 사람의 마음은 자칫하면 그가 구하는 쪽으로 기운다. 탐할 것을 생각하면 탐심이 생긴다. 성낼 것을 생각하면 성내는 마음이 더 강해진다. 어리석은 일들을 생각하면 어리석은 마음

깨달음의 길

만 더욱 커진다.

소치기는 가을의 추수기가 되면 방목하는 소를 몰아 외양간에 가둔다. 이것은 소가 곡물들을 어질러서 향의를 받는다든지 또는 도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사람도 그와 같이 좋지 않은 일로부터 일어나는 재난을 보고 마음을 가다듬어 나쁜 생각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버려,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자선과 친절을 불러오는 마음을 기르지 않으면 안된다.

소치기는 봄이 되어서 들판의 풀이 싹트기 시작하면 소를 방목한다. 그러나 소의 무리들의 행방을 지켜보며 그들이 있는 곳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사람은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 행방을 지켜보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세존이 코삼비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세존에게 원한을 품은 자가 거리의 악당들을 매수하여 세존의 욕을 하게 하였다. 세존의 제자들이 거리에 나가 탁발하려 해도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었고, 오직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그 때에 아난다는 세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이런 곳에 머무를 것이 아닙니다. 딴 곳에 더 좋은 곳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난다여! 다른 곳도 이러하면 어쩔 것인가?” “세존이시여! 그러면 또 딴 곳으로 옮기지요.” “아난다여! 그렇다면 어디까지 가도 한이 없다. 나는 비방을 받았을 때에는 그것을 꼭 참고 비방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딴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아난다여! 부처는 이익, 해로움, 중상, 명예, 칭찬, 비방,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이 세상의 여덟 가지 것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일이 없다. 이런 일들은 얼마 뒤에는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제 2 절 선행

1. 도를 구하는 자는 항상 몸, 입, 뜻의 세 가지 행을 맑게 할 것을 마음먹지 않으면 안된다. 몸의 행을 맑게 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이 있는 것을 죽이지 않으며, 도적질을 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는 것이다. 입의 행을 맑게 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욕설을 하지 않으며, 이간질을 하지 않으며,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뜻의 행을 맑게 한다는 것은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잘못된 견해를 갖지 않는 것이다.

깨달음의 길

마음이 흐리면 행하는 것도 더러워지고, 행하는 것이 더러워지면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맑게 하고 행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도의 요체이다.

2. 옛날에 어떤 돈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는 친절하고 정숙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아주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 집에 하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녀는 영리하고 부지런히 일하였다.

어느 날 그 하녀가 이렇게 생각하였다. 우리집 주인은 정말로 평판이 좋은 여자인데, 정말 본래부터 그렇게 생긴 사람일까 아니면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디 한 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하녀는 다음 날 일부러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고, 낮이 되어서야 얼굴을 내밀었다. 주인은 기분이 나빠져서 왜! 이렇게 늦었는가? 라고 꾸짖었다. 그러자 하녀는 하루쯤 늦게 일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대꾸하니 주인은 벌컥 화를 냈다.

그런데 하녀는 다음 날도 늦게 일어났다. 주인은 화를 참지 못해 그녀를 때렸다. 이런 일이 소문이 나서 그 과부는 이제까지의 좋았던 평판을 한 번에 잃고 말았다.

3. 누구나 이 여주인과 마찬가지로이다. 환경이 모두 자신의 마음에 맞으면 친절하고 겸손하고 차분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환경이 바뀌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자기에게 언짢은 말이 귀에 들려 왔거나 상대가 분명히 자기에게 적의를 품어 왔을 때 또는 의식주가 용의하게 얻어지지 않을 때, 이런 때에도 역시 고요한 마음과 선행을 지속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환경이 모두 자신의 마음에 들 때만 고요한 마음을 갖고 착한 행동을 한다면 그는 진실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단련된 사람이야말로 고요하고 겸손하며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4. 사람이 하는 말은 대체로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말이 경우에 맞는 말과 맞지 않는 말, 사실에 맞는 말과 맞지 않는 말, 상냥한 말과 거칠은 말, 유익한 말과 유해한 말, 자애로운 말과 증오의 말 등 이다.

깨달음의 길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은 그 말을 들을 사람과 그 말이 끼칠 영향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가려서 해야 한다. 동정심이 충만한 사람은 사악한 말을 들으면 그 말에 저항감이 생길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에 분노나 증오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언제나 동정심과 지혜를 담은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쟁기와 쟁이를 들고 이 대지의 흙을 없애려고 흙을 파헤치면서 ‘흙이여 없어져라!’ 라고 하여도 흙을 없앨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모든 말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바랄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말을 하여도 마음을 가다듬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채워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또 물감으로 공중에다 그림을 그리려 해도 사물의 모습을 그려 낼 수가 없고, 또 마른 풀로 만든 햇불로 대하의 물을 마르게 하려 해도 할 수 없으며, 또 잘 다듬은 부드러운 가죽을 마찰하여 까실까실한 깨지는 소리를 내려고 해도 소리가 나지 않듯이, 그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결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마음을 키워가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은 마음을 대지와 같이 넓게 하늘과 같이 끝 없게 대화와

같이 깊게 다듬어진 가죽처럼 부드럽게 키우지 않으면 안된다.

비록 적에게 사로잡혀 고통을 받게 되는 일이 있어도, 그 때문에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킨 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미움이나 성내는 말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동정과 연민이 있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감싸야겠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5. 어떤 사람이 밤에는 연기가 나고 낮에는 타오르는 개미 집을 발견하고서 현자에게 찾아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일러주었다. “그러면 칼로 깊이 파 들어가 보시오.” 그가 일러준 대로 그 개미집을 파보았다. 그런데 처음에는 장도리가 나오고, 다음에는 물거품, 다음에는 작살 그리고 상자, 거북이, 소잡는 칼 그리고 한조각의 고기덩이가 나오더니, 결국 용이 나왔다. 현자에게 그 사실을 말하니, 나온 물건들은 모두 버리고 용만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였다.

이것은 비유이다. 여기에서 ‘개미집’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을 말한다. ‘밤에는 연기가 나다’라는 것은 낮에 한 일을 밤이

깨달음의 길

되면 여러가지로 생각하여 기뻐하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한다는 것을 말한다. ‘낮에는 타오른다’ 라는 것은 밤에 생각한 것을 낮이 되면 몸이나 입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 이라는 것은 도를 구하는 사람을 말하며, ‘현자’는 부처를 말한다. ‘칼’이라는 것은 맑은 지혜를 말하고, ‘깊이 파들어 간다’라는 것은 노력을 말한다.

‘장도리’란 무명을, ‘물거품’은 성냄과 괴로움을, ‘작살’은 초조와 불안을, ‘상자’는 탐냄, 성냄, 어리석음, 게으름, 들뜸, 뉘우침, 미혹을, ‘한 조각의 고깃덩이’는 쾌락을 탐내는 것을 말한다.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이 몸의 독이 되는 것이므로 ‘모두 버리라.’고 말한 것이다.

끝으로 ‘용’이라는 것은 번뇌가 다한 마음을 말한다. 자신의 몸을 지혜의 칼로 파내려 가면, 결국 이 용을 보게 된다. 그러나 ‘용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말’은 자신을 점점 분석해 들어가서 번뇌로부터 해탈한 이 마음의 용을 발견하라는 의미이다.

6. 세존의 제자 핀돌라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 고향 사람들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코삼비로 돌아왔다. 그는 고향에서 부처의 씨앗을 뿌릴 논밭을 가꾸려 하였다.

그런데 코삼비의 교외에는 작은 공원이 있는데 그곳은 야자수가 끝 없이 우거져 있고, 간지스의 양양한 물결은 신선한 바람을 끊임없이 불어 보내고 있었다.

어느 여름 날 한낮의 뜨거운 별을 피하여 핀돌라는 야자수 그늘 밑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다. 마침 그 날은 성주 우드야나 왕도 왕비와 시녀들을 거느리고 공원으로 소풍을 나왔다. 그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놀았는데, 왕은 어느덧 그늘 밑에서 잠시 잠이 들어 있었다.

왕비와 시녀들은 왕이 잠든 사이에 여기저기 노닐다가 나무 그늘 밑에서 좌선하는 핀돌라를 보았다. 그녀들은 그 모습에 마음이 끌려 도를 구할 마음을 일으키고 설법해 줄 것을 청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이 때 눈을 뜬 왕은 왕비와 시녀들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겨

깨달음의 길

뒤를 쫓았는데, 때마침 나무 그늘 밑에서 왕비와 시녀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 사람의 출가가를 보았다. 음욕에 빠져 있는 왕은 앞 뒤도 생각해 보지 않고, 질투의 불꽃이 일어나, “나의 여자들을 가까이 불러들여 잡담을 일삼고 있는 놈은 무엄한 놈이다.”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핀돌라는 눈을 감은채,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가 치밀은 왕은 검을 뽑아들고, 핀돌라의 머리에 댔으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더욱 화가 난 왕은 개미집을 부수어 수 많은 불개미들을 그 옆에 뿌렸으나 그래도 핀돌라는 단정히 앉은 채로 그것을 견디고 있었다.

일이 이쯤 되자 왕은 자기의 광포를 뉘우치고, 그 죄를 빌고 용서를 빌었다. 이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왕가에 들어왔으며 그 나라에 널리 퍼지는 실마리가 되었다.

7. 그 뒤로 며칠이 지나 우드야나 왕은 핀돌라가 머물고 있는 숲 속으로 찾아가 평소 궁금했던 점을 물었다. “대덕이여! 부처님의 제자들은 젊은 몸이면서 왜 음욕에 빠지지 않고 청정하게 그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핀돌라는 대답하였다. “대왕이시여!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여인들에 대한 생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상의 여인을 어머니로 알라. 중년의 부인을 누나로 보고, 젊은 여인을 누이동생처럼 보라고, 이 가르침에 의하여 제자들은 젊은 몸이면서도 음욕에 빠지지 않고, 그 몸을 맑게 지닐 수 있습니다.”

왕은 또 물었다. “대덕이여! 그러나 사람은 어머니같은 사람에게도 누나같은 사람에게도 누이동생같은 사람에게도 음탕한 생각을 갖는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음욕을 누를 수 있는가?”

“대왕이시여! 세존께서는 사람의 욕심은 여러 가지로 더럽혀져서 피, 고름, 땀, 기름같은 더러움에 넘쳐있음을 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봄으로써 우리들은 젊으면서도 마음을 맑게 가질 수 있습니다.”

“대덕이여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단련하여, 지혜를 연마한 불제자들에게는 용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불제자라하더라도 미숙한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더럽혀진 것을 보려해도 어느덧 맑은 모습에 마음이 끌리고, 추한 것을 보려해도

깨달음의 길

어느덧 아름다운 것에 눈이 팔려간다. 불제자가 아름다운 행을 유지하려면, 보다 다른 곳에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대왕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오관의 문을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눈으로 색깔과 형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에 사물이 닿았을 때에 그 좋은 모습에 마음을 뺏기지 말며, 좋지 않은 모습에 마음을 초조하게 하지 말며, 그래서 오관의 문을 잘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에 의하여 젊은 사람이지만, 심신을 맑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덕이여!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정코 훌륭하시다. 나의 경험으로도 꼭 그대로이다. 오관의 문을 단속하지 않고 일에 향하면, 곧 비굴한 마음에 사로잡힌다. 오관의 문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행을 맑게 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8. 사람이 마음 속에 생각하는 바를 행동으로 나타낼 때, 항상 거기에는 반작용이 생긴다. 사람은 구슬리면 말대답을 한다든지 양값음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이 반작용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바람을 향하여 침을 뱉는 것과 같

은 것이다. 그것은 바람을 향하여 먼지를 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먼지를 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양갓음 뒤에는 늘 재난이 따르기 마련이다.

9.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널리 남에게 베푸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나아가 부처님의 진리를 닦는 데에 전념하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이다.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남을 돕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이 베푸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행복은 그로부터 생긴다.

한 묶음의 햇불로부터 몇 천사람이 불을 붙여도 원래의 햇불은 그대로인 것처럼 행복은 아무리 나누어 줘도 없어지지 않는다.

도를 닦는 자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삼가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뜻이 아무리 높아도 그것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도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는 그날 그날의 생활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깨달음의 길

10. 이 세상에 깨달음의 도를 닦기 시작하는 데, 이루기 어려운 것이 스무 가지가 있다.

- (1) 빈한해서 베풀기가 어렵고,
- (2) 게을러서 도를 배우기가 어렵고,
- (3) 목숨을 바쳐 도를 구하기가 어렵고,
- (4) 부처님의 재세에 생을 받기가 어렵고,
- (5)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가 어렵고,
- (6) 색욕을 참고, 모든 욕망을 떠나기가 어렵고,
- (7) 좋은 것을 보고 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않기가 어렵고,
- (8)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 힘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기가 어렵고,
- (9) 건들어서 노하지 않기가 어렵고,
- (10) 사건이 났는데 무심하기가 어렵고,
- (11) 널리 배우고 깊이 구명하기가 어렵고,
- (12) 초심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기가 어렵고,
- (13) 자만심을 없애기가 어렵고,
- (14) 좋은 벗을 얻기가 어렵고,
- (15) 도를 배워서 깨달음에 들기가 어렵고,
- (16) 외계의 환경에 움직이지 않기가 어렵고,
- (17) 상대방의 능력을 알아서 가르침을 설하기가 어렵고,
- (18) 마음을 언제나 평안하게 갖기가 어렵고,
- (19) 옳고 그름을 들추지 않기가 어렵고,
- (20) 좋은 수단을 배워 알기는 어렵다.

11. 악인과 선인의 특질은 각기 다르다. 악인의 특질은 죄를 모르고, 그것을 그치려 하지 않고, 누가 죄라고 일러주는 것도 싫어한다. 선인의 특질은 선악을 알고, 악인줄 알면 곧 그만두고, 악을 가르쳐 준 사람을 고맙게 여긴다.

이와 같이 선인과 악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악한 사람이란 자기에게 보인 다른 사람의 친절에 감사할 줄 모르지만, 착한 사람이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직접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제3절 부처님의 비유

1. 옛날에 기로국에는 누구나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아주 멀리 떨어진 먼 산에다가 내다 버리는 기이한 관습이 있었다.

그 나라의 어떤 대신에게 늙은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아무리 관습이라고는 해도 아버지를 버릴 수가 없어서 깊이 땅속에 토굴을 파서 아버지를 숨겨 두고 봉양을 다하였다.

그런데 나라에 큰 사건이 일어났다. 신이 왕 앞에 나타나서 왕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던진 것이다. “여기에 뱀이 두 마리 있다. 이 뱀의 자웅을 가릴 수 없으면 이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겠다.” 라고 하였다.

깨달음의 길

왕은 말할 것도 없고, 궁전에 있는 어느 한 사람도 뱀의 자웅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왕은 나라안에 포고하여 그 자웅을 가릴 수 있는 자에게는 후하게 상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그 때 그 대신이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물으니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어렵지 않다. 부드러운 깔개 위에 뱀을 올려놓아 두어라. 그 때 이리 저리 움직이는 놈이 숫놈이고, 움직이지 않는 놈이 암놈이다.” 대신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왕에게 말하고, 그렇게 하여 뱀의 자웅을 가려낼 수 있었다.

그러자 신은 더 어려운 문제를 냈다. 왕도 가신들도 대답할 수 없었으나, 대신은 남몰래 또 아버지에게 물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

그 물음과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자고 있는 자에게는 깨어있다고 하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깨달음을 얻기위해 지금 도를 닦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도를 모르고 자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것이고, 이미 도를 깨닫고 깨어있는 사람에 비하면 그 사

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 바가지의 물이 큰 바닷물보다 많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맑은 마음으로 한 바가지의 물을 떠서 부모나 병자에게 베풀면 그 공덕은 영구히 없어지지 않는다. 큰 바다의 물은 많다고는 하나 언젠가는 다할 때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큰 코끼리의 무게는 어떻게 재는가? 코끼리를 배에 태워 배가 물속으로 얼마나 들어갔는가를 표시해둔다. 다음에는 코끼리를 내려놓고 그 내려가도록 돌을 싣는다. 그래서 그 돌의 무게를 달아보면 그것이 코끼리의 무게다.”

다음에 신은 뼈와 가죽만 남은 굶주려서 말라빠진 사람을 내놓으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한다. “세상에 나보다 더 배고파 괴로워하는 자가 있을까?” “있다. 세상에 만약 마음이 비뚤어져 빈한하고 불법승의 삼보를 믿지 않고, 부모나 스승에게 공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굶주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보로 후세에는 아귀도에 떨어져 오랫동안 굶주림에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네모진 전단 판자가 있다. 이 판자의 어느 쪽이 뿌리 쪽이겠는가? 물속에 띄워보면 뿌리쪽이 조금이라도 더 가라앉게 된다. 그것으로써 뿌리쪽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 같은 모습 같은 형태의 어미와 새끼 두마리의 말이 있다. 어떻게 그 어미나 새끼를 구별할 수 있는가? 꼴을 보면 어미말은 반드시 새끼 말에게 꼴을 밀어준다. 이것으로 곧 알아볼 수가 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대답은 전부 신을 기쁘게 하였고, 또한 왕도 기뻐하였다. 그리고 왕은 이 지혜가 토굴 속에 있는 대신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알고, 그로부터 노인을 버리는 인습을 없애고, 늙은이에게 효행을 다하도록 명하게 되었다.

2. 인도의 비데하국의 왕비는 여섯 개의 상아를 가진 하얀 코끼리의 꿈을 꾸었다. 왕비는 그 상아를 갖고 싶다고 청했다. 왕비를 사랑하는 왕은 이 무리한 청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은 코끼리를 아는 자가 있으면 말하도록 포상금을 내걸고 나라 안에 방을 붙였다.

그런데 히말라야 산의 깊은 곳에 여섯 개의 상아를 가진 코끼리가 있었다. 이 코끼리는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을 하고 있었

는데, 어느날 한 포수를 위험에서 건져 주었다. 가까스로 나라에 돌아온 이 포수는 이 방을 보고 상금에 눈이 어두워져 은혜를 잊고, 이 코끼리를 잡으러 산으로 올라갔다.

포수는 그 코끼리가 부처가 되려고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사를 걸치고 승려로 변장하였다. 그리고 산에 들어가 코끼리에게 가까이 가서 코끼리가 마음을 놓고 있는 것을 알자 독화살을 쏘았다.

독화살에 맞아 죽을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아차린 코끼리는 포수의 죄를 탓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번뇌의 잘못을 가없게 여겨 포수를 그 네 발 사이에 감싸고, 보복하려는 많은 코끼리 때로부터 지켜주면서 포수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를 물었다. 그가 여섯 개의 상아를 구하기 위하여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알자, 스스로 이빨을 큰나무에 부딪쳐 부러뜨려서 그에게 주었다. 이 코끼리는 이 보시행에 의하여 불도수행을 성취하였다. “나는 불국토에 태어날 것이다. 앞으로 부처가 되면, 먼저 그대가 마음 속에 있는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 독화살을 뽑아버리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맹세하였다.

3. 히말라야 산기슭에 있는 어떤 대밭에 많은 새들과 짐승들과 함께 앵무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대나무끼리 서로 마찰되어 불이 일어났다. 불은 바람을 타고 크게 번져, 새도 짐승도 도망칠 곳이 없어 울부짖고 있었다. 앵무새는 먼저 오랫동안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대밭의 은혜를 갚고자, 그리고 많은 새나 짐승들의 재난을 안타깝게 여겨 그들을 구하기 위해 가까운 못으로 가서 날개에 물을 적서다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불길 위에도 물을 뿌렸다. 이처럼 대밭에 대한 은혜를 갚으려는 생각과 끝없는 자애의 마음으로 쉬지 않고 그렇게 계속하였다.

앵무새의 자비와 헌신의 마음은 천계의 신을 감동시켰다. 신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앵무새에게 말하였다. “너의 생각은 가특하나, 이렇게 큰 불을 어찌 그 날개에 적신 물로 끌 수 있겠느냐?” 앵무새는 대답했다.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는 일과 자비의 마음에서 하는 일이 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합니다. 저 세상에 가서라도 하고야 말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신은 앵무새의 위대한 뜻에 감동되어 힘을 합쳐서 산불을 꺾다.

4. 히말라야 산에 공명조라는 새가 있었다. 몸은 하나이고 머리는 둘이었다. 어느 날 한 쪽 머리가 맛있는 과실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머리가 시샘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렇다면 나는 독있는 과실을 먹어 주겠다.”라며 독을 먹고 둘다 죽고 말았다.

5. 어떤 뱀의 머리와 꼬리가 어느 날 서로 앞으로 나가려고 다투었다. 꼬리가 말하기를, “머리야! 너는 언제나 앞에 있는데, 그것은 바른 일이 아니야. 때로는 나를 앞에 두는 것이 좋아.” 머리가 대답하기를, “내가 언제나 앞에 있는 것은 옛날부터 그래 왔어. 너를 앞에 둘 수는 없어.”라고 하였다.

서로 앞장 서겠다고 다투었으나 싸움은 끝나지 않고 역시 머리가 앞에 있게 되자 꼬리는 화가 나서 꼬리를 나무에 감아 머리가 앞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머리는 힘이 빠져 기진맥진하자 꼬리는 나무에 감은 것을 풀고 자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결국은 불구멍으로 떨어져 타죽어 버렸다.

일에는 모두 순서가 있고, 각자 다른 일이 주어져 있다. 불평을 늘어놓아 그 순서를 어지럽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잃어

깨달음의 길

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멀어버리는 것이다.

6. 대단히 성질이 급해서 성을 잘내는 한 사나이가 있었다. 어느날 그 사나이의 집 앞에서 두 사람이 서로 흉을 보고 있었다. “이 집 사람은 대단히 좋은 사람이지만, 성질이 급한 것과 성을 잘내는 것이 흠이다.”라고 하였다. 그 소리를 들은 사나이는 곧 집에서 뛰쳐나와 두 사람에게 달려들어 치고 차고 때리는 행패를 부려 결국 이 두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과오를 지적당하면 반성하고 고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과오를 지적당하면 고치기는 커녕 오히려 잘못을 거듭하기만 한다.

7. 돈은 많으나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다. 남의 집이 삼층집으로 높이 솟아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부러워서 나도 돈이 있으니 높은 집을 짓겠다고 마음먹었다. 목수를 불러다가 일켰다. 목수는 그대로 기초를 만들고 이층까지 올리고 삼층까지 올리려고 하였다. 그 때 주인이 황급히 소리를 지르며, “내가 지으려는 것은 기초도 아니고 일층도 아니고 이층도 아니고 삼층의 높은 누각이다. 어서 그것을 만들라.” 라고 하였다.

어리석은 자는 노력할 것을 모르고, 오직 좋은 결과만을 기대한다. 그러나 기초없는 삼층이 있을 수 없듯이,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8. 어떤 사람이 꿀을 달이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찾아왔다. 그래서 꿀을 대접하려고 불에 올려놓은 채로 부채로 부쳐서 식히려 하였다. 이와 같이 번뇌의 불을 끄지 않고 맑은 깨달음의 꿀을 얻으려 해도 얻어질 리가 없다.

9. 두마리의 도깨비가 상자 하나와 주렁 한 개와 신발 한 짝을 가운데 두고 서로 다투는데, 하루 종일 다투어도 끝이 없고, 계속 다투고 있었다.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다투고 있는가 이 물건들에 무슨 비밀이 있기에 그토록 다투느냐?”라고 물었다.

두 도깨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상자에는 먹을 것, 보물, 무엇이나 갖고 싶은 것을 맘대로 낼 수 있다. 또 이 주렁을 쥐면 곧 적도 부수어 이길 수 있다. 이 신발을 실으면 공중을 맘대로 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깨달음의 길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다툼 것 없다. 너희들은 여기서 물러가 있거라. 내가 똑같이 나누어 주마”라고 말하고, 두 마리의 도깨비를 떼어놓고 자기가 상자를 끼고 주령을 들고 신발을 신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도깨비’란 이교도를, ‘상자’는 보시를 말한다. 그들은 보시로부터 모든 보물이 나오는 줄을 모른다. 또 ‘주령’이란 마음의 통일을 말한다. 그들은 마음의 통일에 의하여 번뇌의 악마를 때려부수는 줄을 모른다. ‘신발’은 청정한 계를 말한다. 그들은 이 청정한 계에 의하여 모든 다툼을 초월하는 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이 상자와 주령과 신발을 서로 가지려고 다툼 것이다.

10.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였다. 어느날 밤 홀로 쓸쓸히 여관방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귀신이 사람의 시체를 꿰어지고 들어와 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또 다른 귀신이 쫓아와서, “이것은 내것이다” 라고 하며 서로 큰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자 먼저 온 귀신이 뒤에 온 귀신보고, “이렇게 싸움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어디 증인을 세워 결판을 내자.”라고 말했다. 뒤에 온 귀신도 이것을 승낙하여 뒤에서 웅크리고 있던

사나이를 불러놓고, 어느 쪽이 먼저 가지고 왔는가를 물었다. 이 때 사나이는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 한 쪽 귀신의 편을 들면 다른 쪽 귀신의 미움을 사서 죽음을 당할 것이 뻔하므로, 결심하여 정직하게 자기가 본대로 말하였다.

추측한 대로 한 쪽 귀신은 크게 화가나서 그 사나이의 손을 비틀어 뽑아버렸다. 이것을 본 앞의 귀신은 곧 시체의 손을 들고 와서 붙여주었다. 다른 귀신은 점점 화가나서 또 손을 뽑고, 다리도 뽑고, 몸통을 빼고 결국 머리까지 뽑아버렸다. 앞의 귀신은 차례차례로 시체의 손, 다리, 몸통, 머리를 가져다가 모두 붙여놓았다. 이리다가 두 귀신은 싸움을 그치고, 근방에 흩어진 손발들을 먹고, 배를 채우고 나서 입맛을 다시며 사라져 버렸다.

외딴 오두막집에서 하룻밤을 자려했던 나그네는 비참하게 낭패를 당했다. 부모로부터 받은 손발, 몸통, 머리를 귀신에게 먹혀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손도 발도 몸통도 머리도 시체의 것으로 바뀌고 말았다. 도대체 자기가 자기인가, 자기가 아닌가? 도무지 알 수 없게 된 사나이는 날쌔 무렵에는 반쯤 미치고 말았다. 그는 그 집을 나와 길을 걷다가 도중에서 짚을 발견하고 그

깨달음의 길

절로 들어가서 스님들께 어젯 밤에 당한 무서운 일들을 이야기 하였다. 이 이야기를 드는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아의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11. 어느날 어떤 집에 어떤 어여쁜 여인이 곱게 차리고 찾아왔다. 그 집 주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 그 여인은 “저는 사람들에게 부를 갖다주는 복신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주인은 기뻐서 그 여인을 집으로 불러들여 후하게 대접하였다.

그런데 그 뒤에 곧 초라한 모습의 못생긴 여인이 들어왔다.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니 가난신이라고 대답하였다. 주인은 깜짝 놀라 그 여인을 쫓아내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 여인은 “좀 전의 복신은 나의 언니다. 우리 두 자매는 떨어져 산 일이 없으므로 나를 쫓아내면 언니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여인이 떠나버림에 복신도 역시 없어져 버렸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재난이 있다. 선한 일이 있으면 악한 일이 있다.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는 오직 부질없이 재난을 싫어하고, 행복만을 바라나 도를 구하는 자는 이 두 가지를 초월하여 그 어느 것에도 집

착하면 안된다.

12. 옛날에 가난한 화가가 있었다. 아내를 고향에 남기고 여행을 떠나 3 년간의 고생끝에 많은 돈을 벌었다.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도중에 대법회가 행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자리는 많은 스님들에게 정성껏 공양을 올리는 법회였다. 그는 크게 감동하여, “나는 아직 복의 씨앗을 뿌린 일이 없다. 이제 복의 씨앗을 뿌릴 논밭을 만났는데, 어찌 이대로 지나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여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 많은 돈을 흔쾌히 공양하고 무일푼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빈 손으로 돌아온 남편을 본 아내는 대단히 화가 나서 다그쳐 묻자 불쌍한 남편이 대답하였다. “재물은 모두 견고한 창고 속에다가 쟁여놓았다.”라고 하였다. “대체 그 창고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라고 아내가 다그치자 남편은 “어느 절 스님들께 바쳤오.” 라고 실토했다.

화가 난 아내는 이런 일을 관청에 고발하여, 화가는 취조를 받게 되었다. 이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귀중한 노력에 의하여 얻은 재물을 괜히 소비한 것은

깨달음의 길

아니다. 나는 이제까지 복의 씨앗을 심는 것을 모르고 지내왔으나, 복의 씨앗을 뿌릴 논밭이라 할 수 있는 공양의 기회를 보고, 신심이 생겨 가까운 생각을 버리고 베푸는 것이다. 진정한 부는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라고 하였다.

관청에서는 화가의 마음을 칭찬하였고, 많은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감동하였다. 그로부터 그의 신용은 높아지고, 화가 부부는 이로 말미암아 큰 부자가 되었다.

13. 어떤 사나이가 묘지 옆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묘지 속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다. 날이 새자 그 일을 친구에게 말하니, 친구 중에서 용기있는 어떤 사람이 다음 날 저녁에도 또 그러면, 그 소리나는 곳을 찾아보리라 마음먹었다.

다음날 저녁에도 또 그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그 사나이는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 용기있는 친구가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서 너는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땅속에서 하는 말이 “나는 땅속에 숨겨진 보물이다. 어젯밤 누군가에게 나를 주려고 했는데 그가 무서워서 오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용기가

있으니 나를 가져갈 만하다. 내일 아침에 나는 일곱 명의 하인과 함께 너의 집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용기있는 친구는 이 말을 듣고, “우리 집에 온다면 기다리겠으나, 어떻게 대접하면 되는가?” 라고 물었다. 그러자 땅에서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출가자의 모습을 하고 갈 것이다. 우선 목욕을 하고 방을 깨끗이 치우고, 물을 준비하고 여덟 개의 그릇에 죽을 담아놓고 기다리면 된다. 식사가 끝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따로 따로 데려다가 칸이 막힌 방속에 넣어두면 우리들은 그대로 황금의 단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이 사나이는 목욕을 하고,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기다리고 있으려니, 과연 여덟 명의 출가자들이 탁발하러 왔다. 방으로 들어서 물과 죽을 공양하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칸이 막힌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여덟 사람이 다 황금이 가득 채워진 단지로 변해버렸다.

이 말을 들은 어떤 욕심쟁이가 그도 황금단지가 갖고 싶어서 똑같이 목욕을 하고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탁발하는 출가자 여덟 사람을 초대하여 공양하고 식사 한 뒤에 구석방에다 가두었

깨달음의 길

다. 그러나, 여덟 명의 출가자들은 황금단지가 되기는 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난동을 부려서 그 사나이는 고발되어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처음의 겁 많은 사나이라도 애초에 무덤에서 자기를 부르던 소리가 황금단지였음을 알고 욕심이 생겨, 저 소리는 원래 나를 불렀으니 자기 것이라고 하며, 그 집으로 들어가서 단지를 가지고 나오려 하였다. 그런데 그 단지 속에는 뱀이 가득 들어 있어, 뱀들이 고개를 쳐들고 그 사나이에게 달려들려고 할 뿐이었다.

그 나라의 왕이 이 말을 듣고 황금단지는 모두가 이 용기있는 사나이 것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이 세상의 일은 모두가 이런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오직 그 과보만을 바라나, 그것은 그것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길으로만 계를 지키고 있고, 마음 속에 참된 신심이 없으면 결코 참다운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유시를 내렸다.

제 2 장 실천의 길

제 1 절 도(道)를 구하여

1. 이 우주(宇宙)의 짜임새는 어떠한 것인가? 이 우주는 영원한 것인가? 드디어는 없어지는 것인가? 이 우주는 끝없이 넓은 것인가? 아니면 끝이 있는 것인가? 사회의 짜임새는 어떠한 것인가? 이 사회의 어떠한 형태가 이상적인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는 한, 도(道)를 닦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면, 누구나 도(道)를 닦기도 전에 죽음이 찾아 올 것이다.

이를 테면, 사람이 무서운 독화살에 맞았다고 하자.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모여, 급히 의사를 불러, 독화살을 뽑고 손을 쓰려고 한다.

그런데 그 때 그가 만류하면서 “잠깐만, 화살을 뽑지 말고 기다려 주시오. 대체 누가 이 화살을 쏘았는지 알고 싶소. 남잔지 여잔지 또는 어떤 집안 사람이 활을 쏘았는지, 귀족인지, 촌부인지, 알아야겠소. 그리고 활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하오. 대궁인가, 소궁인가, 목궁인가, 죽궁인가, 활줄은 무엇으로 만들

실천의 길

어졌던가, 등덩굴이던가, 동물의 힘줄이던가, 화살은 등나무이던가, 갈대던가, 화살깃은 무엇이던가, 그런 것들을 확실히 알 때까지 화살을 뽑는 것을 기다려 주시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도 전에 독은 전신에 퍼져 죽어버릴 것이 틀림없다. 이 경우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화살을 뽑고 독이 전신에 퍼지지 않게 손을 써야 하는 일이다.

욕정의 불로 세상이 위험할 때 이 우주가 어떤 구조이든지 그리고 이 사회의 어떠한 형태가 이상적이든 아니든 자기 신상에 닥쳐오는 불은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주가 영원하건 그렇지 않건 끝이 있든 없든 그런 문제는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의 불길을 끌 방법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 지금 사람들의 머리 위를 덮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 길을 찾아 실천하는 데에 무엇보다도 전념해야 한다.

부처님은 반드시 설해야만 할 것을 설하고 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설하지 않는다. 즉 사람들에게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끊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끊어버리게 해주며, 깨달아야 할 것을 닦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무슨 문제를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것인가.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절박한 것인가를 알아서 자기 마음을 훈련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먼저 심성훈련을 받아야 한다.

2. 또 수목의 심을 구하기 위하여 숲 속으로 들어간 자가 가지나 잎사귀를 얻고 심을 얻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은 나무의 심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도 그 외피나 내피 또는 나무의 살만을 얻고 심을 얻은 것처럼 생각한다.

사람의 신상에 다가온 생과 노와 병과 사와 걱정, 슬픔, 아픔과 괴로움을 여의기를 바라며 도를 구한다. 이것이 심인 것이다. 그것이 자그마한 존경과 명예를 얻어서 만족하여 마음이 오만해지고 자신을 추켜세우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지업을 얻었을 뿐인데 심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실천의 길

또 자신의 마음이 어느 만큼 안정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여 마음이 거만해져서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은 나무의 내피만을 얻고 심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또 자신의 자그마한 노력에 만심하여 바라는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여 만족하여 마음이 오만해져서 자신을 추켜세우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나무의 외피만을 얻고 그 심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다.

또 사물을 직관하는 통찰력이 조금 생기자 이것에 눈이 어두워 마음이 거만해져서 자신만을 추켜세우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나무의 살만을 얻고 그 심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들은 모두 기운이 늦추어져서 태만하여 또다시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도를 구하는 자에게는 존경과 명예와 공양을 받는 일이 그 목적이 아니다. 자그마한 노력이나 다소의 마음의 안정, 또는 알팍한 지식과 통찰력이 그 목적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생과 사의 근본적인 성질을 마음 속에 새겨두지 않으면 안된다.

3. 세계는 그 자체의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 마음이 망상하는 것을 없애는 길을 얻어야만 된다. 외형에 미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심이 미혹을 낳게 하는 것이다.

마음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 욕망의 불길에 빠져서 고뇌하고 무명으로 말미암아 미혹의 어둠에 싸여 걱정하고 슬퍼한다. 미혹의 집을 짓는 것은 이 마음 밖에 없음을 알아 도를 구하는 자는 이 마음과 싸워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4. “내 마음이어! 너는 어이하여 무상한 생활환경에 불안하게 배회하는가? 어이하여 나를 당황스럽게 하고 고요히 머물지 못하고 안절부절 하느냐? 어찌하여 부질없이 그토록 많은 것들을 모으게 하는가? 땅을 갈기도 전에 산산히 부서진 쟁기와 같고 위험을 무릅쓰고 생사의 미혹한 바다에 배를 띄울 순간에 제거해 놓은 방향키와 같구나. 우리가 이승의 생활을 보람있게 하지 못하면 수많은 생을 다시 태어난들 무엇하겠느냐.

마음이어! 너는 나를 왕으로 태어나게도 하였다. 또는 부랑자

실천의 길

로 태어나게 하여 이곳저곳으로 떠돌게 한 일도 있었다. 때로는 나를 신들의 나라에 태어나게 하여 영화의 꿈에 취하게도 했었으며 또 지옥의 불길에 타게 한 일도 있었다.

어리석은 마음이어! 너는 나를 온갖 길로 인도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늘 너를 따랐을 뿐 한번도 거스른 적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몸이 되었다. 이젠 나를 괴롭히거나 방해하지 않게 해주게. 아무쪼록 내가 여러 가지 괴로움을 떠나 빨리 깨달음을 얻도록 힘써주게.

마음이어! 네가 모든 것은 모두 실체가 없고 공허하고 덧없음을 알면, 무엇이나 내 것이라 생각하는 일도 없고,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여의기만 하면 평안해질 것이다. 지혜의 검으로 애욕의 덩굴을 끊고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방에 괴로워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면 평안한 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어! 너는 나를 인도하여 도를 구할 것을 생각해 하였다. 그런데, 이제 어이하여 너는 또 이 세상의 이익과 욕망과 부귀영화에 이끌려 다니게 하는가?

아, 마음아! 너는 확실한 목표도 없이 우왕좌왕 내달리느냐? 제발 이 넘기 어려운 미혹의 거센 바다를 건너게 해다오. 이제 까지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왔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서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자.

내 마음이어! 산도 강도 바다도 모두가 다 변하고 재난에 가득차 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즐거움을 구할 수가 있겠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빨리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구나.”

5. 이와 같이 마음과 싸워서 진정으로 도를 구하는 사람은 항상 굳센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므로, 깔보고 욕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없다. 주먹으로 때리고 돌을 던져 검으로써 베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때문에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양날의 톱으로 머리와 몸통이 잘린다 하여도 마음이 흩어져서는 안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진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자다. 제 몸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의연

실천의 길

한 태도와 확고부동한 마음을 지니고 자비심과 자선심을 발휘해야 한다. 비난이여, 오라. 불운이여, 오라.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흩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 속에 가득해지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깨달음을 위해서는 이루기 어려운 일도 이루어 내고, 견디기 어려운 일도 능히 견디고, 최후로 남은 것도 선뜻 배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하루에 한톨의 쌀을 먹고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그대로 할 것을 조금도 사양치 않는다.

그러나 그런 일을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해서는 안 된다. 베풀고도 베풀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은 그 일이 현명하고 바른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머니가 한 벌의 옷을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고도 주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자식을 간호하고도 자식을 간호했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일이 없는 어머니와 같은 자비심으로 일을 해야 한다.

6. 옛날 어떤 왕이 있었다. 왕은 지혜가 밝고 자비가 깊어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풍요하고 안락하게 다스리고 있었다.

또 왕은 도를 구하는 마음이 두터워서 늘 재보를 갖추어놓고 누구든지 존귀한 가르침을 교시해 주는 자에게는 이 재보를 베풀었다고 포고하였다.

왕이 도를 구하는 지성에는 신의 세계도 감동하였다. 신은 왕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귀신의 모습으로 왕의 궁전 문 앞에 나타났다. “나는 존귀한 가르침을 알고 있다. 임금에게 가르치고 싶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대단히 기뻐하여 공손히 내전으로 안내하여 그 가르침을 듣고 싶다고 원하였다. 그랬더니 귀신은 칼날 같은 무서운 이빨을 내밀면서 “지금 나는 대단히 배가 고프다. 이대로는 아무래도 가르침을 설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먹을 것을 드리지요.” 라고 말하니 “내가 먹을 것은 더운 인간의 피와 살이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때 왕의 태자는 스스로 몸을 버려 귀신의 허기를 채우겠다고 하였으며 왕비도 또한 스스로 그 몸을 그 먹이로 하려고 하였다. 여기서 귀신은 두 사람의 몸을 먹었으나 아직도 허기가 가시지 않아 드디어 왕까지 먹겠다고 말한다.

실천의 길

드디어 왕은 조용히 말하였다. “나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오직 이 몸이 없어진다면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으므로 네가 가르침을 설하고 나면 내 몸을 바치리라.”

귀신은 그 때 “걱정은 애욕으로부터 생기고 애욕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애욕을 떠난 사람에게는 걱정도 없고 또 어느 곳에 두려움이 있으리.” 라고 설하고 별안간에 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와 동시에 죽었어야 할 태자도 왕비도 모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7. 옛날 히말라야 산에 진실을 구하는 행자가 있었다. 오직 미혹을 여의는 가르침을 구할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구하는 것이 없이 지상에 가득찬 재보는 물론 신의 세계의 영화조차도 바라지 않았다.

신은 이 행자의 수행에 감동하여 그 마음의 진실을 시험하고자 귀신의 모습이 되어 히말라야 산에 나타나 “모든 것은 변하며 나타났다가는 사라진다.” 라고 노래하였다.

행자는 이 노랫소리를 듣고 목마른 자가 물을 얻듯이 또 간혀

있던 자가 풀려나듯이 기뻐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오랫동안 내가 찾아오던 진실한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는 주위를 둘러 보고 누가 이 존귀한 노래를 읊었는지를 찾고 있을 때, 무서운 귀신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괴이하게 여기면서도 귀신에게 가까이 가서 “조금 전의 노래는 그대가 부른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다음을 불러주게.”라고 부탁하였다.

귀신은 대답하였다. “그렇다. 그것은 나의 노래다. 그러나 나는 지금 굶주리고 있어서 무엇인가 먹지 않고는 부를 수가 없어.”

“아이 그러지 말고 다음을 들려주게. 그 노래에는 정말로 존귀한 의미가 있어 내가 구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말이 끝나지 않았어. 아무쪼록 끝까지 가르쳐주게.” 귀신은 또 말한다.

“지금 나는 공복으로 견딜 수가 없다. 만약에 사람의 뜨끈한 살코기를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다면 그 노래의 다음을 설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행자는 다음 노래를 들려주면 듣고나서 자기의 몸을 바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실천의 길

그러자 귀신은 다음을 불렀고 노래는 완전한 것이 되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나타났다가는 사라진다. 생멸에 얽매이는 일이 없어지면 비로소 고요함과 평안함이 생긴다.”

행자는 이 노래를 나무나 돌에 새겨놓고 드디어 나무 위에 올라가 몸을 귀신 앞에 던졌다. 그 순간 귀신은 신의 모습으로 변하여 행자의 몸을 안전하게 받쳐주었다.

8. 옛날에 사다프라루디타라는 구도자가 있었다. 오로지 진실한 깨달음을 구하고 명예와 이욕에는 조금도 유혹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날 공중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사다프라루디타여! 동으로 가라. 옆눈 팔지 말고 더웁고 추운 것을 잊고 세상의 비방이나 칭찬에도 구애되지 말고, 선악에도 매이지 말고 오로지 동쪽으로 가라. 반드시 진실한 스승을 만나 깨달음을 얻을 것이니.” 라고 하였다.

그는 대단히 기뻐하여 가르침을 들은 대로 오직 동쪽으로만 달려가 도를 구했다. 들뜬에 앞드리고 산에서 자고 또 이국의 여행의 박해와 굴욕을 견디며 때로는 일손을 팔아 사람의 시중

을 들고 뼈를 깎는 생각으로 그날의 먹이를 얻었으며 마침내 진실한 스승에게 이르러 가르침을 청하였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다.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장애가 생기는 법이다 사다프라루디타의 구도의 여행에서도 이 장애는 몇 번이고 나타났다. 스승에게 바칠 향과 꽃의 밑천을 얻고자 품을 팔아 사람의 시중을 듣고 품삯을 얻으려 하여도 그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악마의 방해의 손길은 그가 가는 곳 어디에나 뻗쳐있었다. 깨달음의 길은 정말로 피를 말리고 뼈를 깎는 고난의 길이었다.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존귀한 말씀을 기록하려해도 종이라도 먹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는 칼을 들어 자기의 팔을 찢러 피를 흘려서 스승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존귀한 깨달음의 말씀을 얻었던 것이다.

9. 옛날 수다나(선재)라는 동자가 있었다. 이 동자도 역시 오로지 도를 구하여 깨달음을 원하는 자였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를 찾아가서 바다의 신비로부터 얻은 가르침을 들었다. 사람의 병을 진단하는 의사로부터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자비

실천의 길

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배웠다. 또 재산을 많이 가진 장자를 만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또 좌선하는 출가승을 찾아가서는 그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불사의한 힘을 주는 것을 보았다. 또 품위 높은 마음을 가진 부인을 만나서는 그 봉사의 정신에 감탄하고 자비심이 지혜의 열매임을 알았다. 또 한번은 치열하게 수행하는 방랑 노인을 만나서는 진실로 진리를 구하려면 칼날이 빼곡하게 꽂혀 있는 산에라도 오르고 불 속이라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와 같이 동자는 마음만 있으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모두가 다 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불쌍한 앓은뱅이 여인에게서 인내심을 배웠고, 골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순진한 행복의 세계가 있음을 보았다. 순박하고 겸손한 사람을 만나서는 남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절대로 탐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태평하게 사는 비결을 배웠다.

향의 성분들이 섞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을 피우는 길에도 화합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음을 알았고, 꽃으로 잘 장식한 것을 보고 감사하는 예법의 교훈을 배웠다. 어느 날 숲속을 지나가는 도중에 성스러운 나무의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그는 근처에 썩는 나무에서 새순 하나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생명의 덧없음을 배웠다.

한낮에 내려 쪼이는 눈부신 태양과 밤하늘을 수놓은 반짝이는 별들을 쳐다보면 깨달음을 구하는 선재동자의 마음을 가르침의 빗물로 촉촉하게 적셨다. 동자는 발길이 닿는 곳마다 진리를 물었고 이르는 곳마다 말씀을 들었으며 이렇게 긴 구도 여행에서 겪은 경험 하나 하나에서 깨달음의 이득을 얻었다.

정말로 깨달음을 구하려면 마음의 성을 지키고 마음의 성을 장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경건하게 이 마음의 성문을 열어 그 깊숙한 곳에 부처님을 모시고 심신의 꽃을 공양하여 환희의 향을 바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동자는 배웠던 것이다.

제2절 여러 가지 길

1. 깨달음을 구하는 자가 배워야 할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실천의 길

계율과 마음의 통일과 지혜의 삼학이다.

계란 무엇인가? 사람으로서 또 도를 닦는 자로서 지켜야 할 계를 지키고 심신을 통제하고 다섯 가지의 감각기관의 입구를 지켜서 작은 벌과 죄도 두려워하고 선행을 하며 노력하는 것이다.

마음의 통일이란 무엇인가? 탐욕을 여의고 악심을 여의고 차례로 마음의 안정에 드는 것이다.

지혜란 무엇인가? 네 가지 진실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이것이 고통이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명백히 깨닫는 것이다.

이 삼학을 성실하게 배우는 자가 부처님의 제자라 불리운다.

겉모습은 전혀 소를 닮지 않고 소울음도 내지 않고 쇠뿔도 없는 당나귀가 소의 무리들을 따라다니며 나도 소라고 하여도 아무도 믿지 않듯이 이 계와 마음의 통일과 지혜의 삼학을 배우지 않으면서 나는 도를 구하는 사람이며 부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

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얻기 위하여, 먼저 봄에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풀을 베어 가꾸듯이, 깨달음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삼학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농부가 뿌린 씨앗이 오늘 중에 싹이 트고 내일 중에는 이삭이 패며 모레에는 수확할 수 있기를 원하여도 그렇게 할 수 없듯이, 깨달음을 구하는 자도 오늘 중으로 번뇌를 여의고 내일 중으로 집착을 없애고 모레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농부가 씨앗을 뿌린 뒤에는, 그의 인내심있는 고된 노동과 계절의 변화를 거친 후에 싹이 트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법이다. 깨달음을 얻는 것도 이와 같이 계와 마음의 통일과 지혜의 삼학을 닦고 있는 사이에 차례로 번뇌가 멀하고 집착이 떠나며 비로소 깨달음의 때가 오는 것이다.

2.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호사를 동경하여 감각적인 애욕에 마음이 어지러운 채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기란 어려운 일이다. 세상을 즐기는 것과 도를 즐기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실천의 길

이미 섰듯이 마음이 만사의 근본이다. 마음이 세상일을 즐기면 미혹과 고뇌가 생기고 마음이 도를 즐기면 깨달음과 즐거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구하는 자는 마음을 맑게하여 가르침을 지키고 계를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계를 지키면 마음의 통일을 얻고 마음의 통일을 얻으면 지혜가 밝아져서 그 지혜야말로 사람을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정말로 이 삼학은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삼학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래도록 방황을 거듭해왔다. 도에 들어서서 남과 다투지 않고 고요히 안에 마음을 간직하여 마음을 맑게 하여 빨리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3. 이 삼학은 열면 팔정도가 되고, 사념주, 사정근, 오력, 육바라밀이라고도 한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마음의 통일이다.

바른 견해란 네 개의 진리를 명백히 알고 원인과 결과의 도리를 믿고 외관과 욕망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다.

바른 생각이란 애욕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며 탐내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해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바른 말이란 거짓말과 부질없는 말과 욕설과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바른 행동이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과 부정한 애욕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바른 생활이란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다.

바른 노력이란 바른 일을 향하여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다.

바른 기억이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의식을 확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두는 것이다.

실천의 길

바른 마음의 통일이란 그릇된 목적을 갖지 않고 지혜를 밝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바르게 가라 앉혀서 마음의 통일을 하는 것이다.

4. 사념주란 다음의 네 가지다.

첫째, 내 몸은 더럽혀진 것으로 집착할 것은 못된다고 본다.

둘째, 어떠한 느낌을 받아도 그것은 모두 괴로움의 근본이라고 본다.

셋째, 내 마음은 항상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옮겨 변하는 것이라고 본다.

넷째, 모든 것은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으므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없다고 본다.

5. 사정근이란 다음의 네 가지다.

첫째,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생기기 전에 막는다.

둘째, 이미 생겨난 악은 끊어 버린다.

셋째,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어서 생기도록 한다.

넷째, 이미 생겨난 선은 더욱 더 커지도록 키운다.

이 네 가지에 꾸준히 힘써야 한다.

6. 오력이란 다음 다섯 가지다.

첫째, 믿는 것이다.

둘째, 힘쓰는 것이다.

셋째, 의식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넷째, 마음을 통일하는 것이다.

다섯째, 밝은 지혜를 갖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필요한 힘이다.

7. 육바라밀이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여섯 가지이다. 이 여섯 가지를 닦으면 미혹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가 있다.

첫째, 보시는 아까워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물리치게 해준다.

둘째, 지계는 행을 바르게 해준다.

셋째, 인욕은 분노하기 쉬운 마음을 다스리게 해준다.

넷째, 정진은 게으른 마음을 없애준다.

다섯째, 선정은 흩어지기 쉬운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여섯째, 지혜는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여 예리한 통찰력으로 바꿔준다.

실천의 길

보시와 지계는 큰 성을 쌓는 주춧돌과 같이 수행의 터가 되고, 인욕과 정진은 성벽처럼 외부의 적을 막아주고, 선정과 지혜는 몸을 지켜서 생사의 공격을 막아주는 무기이며 갑옷이다.

구걸하는 자를 보고 주는 것은 보시이지만, 그것은 최상의 보시라고는 말할 수 없다. 마음을 열고 스스로 나아가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최상의 보시이다. 또 간간히 베푸는 것이 최상의 보시는 아니다. 항상 베푸는 것이 최상의 보시인 것이다.

베풀고 난 뒤에 후회한다든지 베풀고 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최상의 보시는 아니다. 베풀고 나서 즐거워하고 베풀 자기와 베풀을 받는 사람과 베풀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잊어 버리는 것이 최상의 보시다.

바른 보시는 그 보답을 바라지 않고 맑은 자비의 마음으로써 타인도 자신과 함께 깨달음에 들도록 바라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세상에 무재(無財)의 칠시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 재산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행을 말한다. 첫째는 신시 곧 육체에 의한 봉사이며 그 최고의 보시는 다음 항에서 말할 사신

행이다. 둘째는 심시, 곧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에 대하여 생각해 주는 마음이다. 셋째는 안시 곧 부드러운 눈빛을 가지는 일로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온화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는 화안시 곧 부드러운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일이다. 다섯째는 언시 곧 생각해주는 마음이 담긴 따뜻한 말을 거는 일이다. 여섯째는 상좌시 곧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일이다. 일곱째는 방사시 곧 자기 집을 하룻밤의 숙소로 제공하는 일이다. 이상의 칠시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행할 수 있는 일이다.

8. 옛날에 살타라는 왕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날 두 형들과 숲 속에서 놀러 나갔을 때 일곱 마리의 새끼를 낳은 호랑이가 허기에 못이겨 급기야 그 새끼들을 잡아먹으려 하는 것을 보았다.

두 형들은 두려워서 도망쳤으나 살타만은 새끼 호랑이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절벽 위로 기어올라가서 제 몸을 굶주린 호랑이에게 던졌다. 왕자를 먹은 어미 호랑이는 허기를 채우고 새끼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실천의 길

살타왕자는 이 자비행위를 자발적으로 하였고 마음은 오로지 도를 구하는 데에만 있었다. “이 몸은 부서지기 쉽고 변하기 쉽다. 이제까지 베풀 줄을 모르고 오직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데에만 힘써왔던 자신은 이제야말로 이 몸을 베풀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바치리라.” 살타왕자의 이런 결심은 깨달음을 위한 참된 결심을 보여준다.

9. 또 여기에 도를 구하는 자가 닦아야 할 네 가지 큰 마음이 있으니, 그것은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이다. 첫째, 자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자를 닦으면 탐심이 끊어진다. 둘째, 비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비를 닦으면 성내는 마음이 끊어진다. 셋째, 희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희를 닦으면 괴로움이 끊어진다. 넷째 사는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사를 닦으면 은혜와 원한의 어느 것에도 차별을 두지 않게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큰 자애(자)이고, 많은 사람들의 불행과 슬픔을 없애주는 것은 큰 가엾음(비)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환희의 마음으로써 대하는 것이 큰 기쁨(희)이고, 모든 사람을 차별을 두지 않고 것에 평등하게 대하여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큰 평정함(사)이다.

이와 같이 자비회사의 네 가지 큰 마음을 조심해서 노력하여 키우면 탐욕과 성냄과 괴로움과 애증의 마음을 없앨 수 있다. 악한 마음은 좀처럼 버리기 어려우니 기르던 개를 버리기 쉽지 않은 것과 같고, 착한 마음은 쉽게 잃어버리니 숲속을 달리는 사슴을 놓치는 것과 같다. 또 악한 마음은 바위에 새긴 글자와 같아 지우기 어렵고, 착한 마음은 물위에 그린 글자와 같아 쉽게 지워진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위해 수행을 하는 일은 참 어렵다.

10. 세존의 제자 슈로나는 부호의 집에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몸이 약했다. 세존을 만나서 그 제자가 되어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뼈아픈 노력을 계속하여 도를 닦았으나 아직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세존은 슈로나를 가엾게 여겨 말씀하셨다. “슈로나여! 그대는 집에 있을 때에 가야금을 배운 일이 있었을 것이다. 줄을 뿔 때 줄이 너무 팽팽하거나 너무 느슨하거나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가장 적절하게 매어졌을 때 비로소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다.

실천의 길

깨달음을 얻는 길도 이와 같아서 게으르면 도를 얻지 못하고 또 너무 다그쳐 노력해도 결코 도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노력을 할 때에도 그 정도를 잘 생각하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 가르침을 받고 슈로나는 능히 터득하여 드디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다.

11. 옛날 오무기라 불리는 왕자가 있었다. 오종의 무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으므로 이런 이름을 얻은 것이다. 수행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광야 가운데서 살갓을 찢러도 상처를 입지 않는 지모라는 괴물을 만났다.

지모는 천천히 왕자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먼저 활을 쏘으나 화살은 지모에 맞아도 털에 들어붙을 뿐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다. 검도 창도 봉도 모두 빨려들어가 버려 아무 소용이 없다. 무기를 모조리 뺏긴 왕자는 주먹을 들어 치고 발길로 찼으나 주먹도 발도 다 털에 빨려버려 왕자의 몸은 지모의 몸에 들어붙어 공중에 매달린 꼴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머리로 지모의 가슴에 부딪쳐 보았지만 역시 허사였다.

지모는 말하였다. “이제 너는 내 손아귀에 있다. 아무리 버터도 소용없다. 이제 너를 먹어야겠다.” 라고 하니 왕자는 웃으며 “너는 내 무기가 다 없어져서 어쩔 수 없게 된 줄로 생각할지 모르나 아직도 나에게는 금강의 무기가 남아있다. 네가 만일 나를 먹으면 네 뱃 속에서 너를 찌를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지모는 왕자의 용기에 기가 꺾여져서 말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묻자, “진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왕자는 대답하였다.

왕자의 대답이 나오자 마자 지모는 왕자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왕자에게 가르침을 설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우화는 불제자들에게 어떤 역경에 직면해도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라고 용기를 북돋워 준다.

12. 자신에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에게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는 세상 사람들을 헤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남에게도 부끄러운 줄 아는 자는 세상 사람들을 지킨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어른과 형제자매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고,

실천의 길

남을 잘 관찰하여 그에 비추어 스스로 뉘우치는 일은 참으로 가치있는 일이다.

참회하는 마음이 일면 이미 죄는 소멸되지만, 참회하는 마음이 없다면 죄는 죄로서 계속 남고 영원히 그 사람을 징계한다.

바른 가르침을 듣고 몇 번이고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닦으면 그 가르침은 내게 복을 준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하고, 스스로 내것으로 터득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구할 수가 없다.

믿음과 겸손, 노력과 지혜는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에게 커다란 힘이다. 이 가운데 지혜가 주된 힘이고, 다른 네 가지는 지혜를 따르는 힘이다. 도를 닦는 데 세상의 잡사에 얽매이고 잡담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며 잠자는 데서 헤어나지 못하면 깨달음의 길에서 퇴보하게 된다.

13. 함께 도를 닦아도 먼저 깨닫는 자도 있고 나중에 깨닫는 자가 있다. 그러므로 타인이 도를 얻는 것을 보고 자기는 아직 도를 얻지 못하였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다.

활쏘기를 배울 때 처음에는 명중하는 일이 드무나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연습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명중하게 된다. 또 강물은 작은 시내에서 시작하지만 흘러가면서 점점 커져 마침내 바다에 들어가는 것처럼 도를 닦는데 쉬지 않으면 반드시 깨달음은 얻어진다.

앞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두 눈을 뜨면 어디에나 가르침은 있다. 그와 같이 깨달음을 얻을 기회도 끝이 없고 어디에서나 나타난다.

한 사람이 향을 피우면서 향기가 풍겨날 때에 그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님을 보고 깨달음에 든 사람도 있다.

길을 걷느라 발에 가시가 박히면 콧콧 찌르는 아픔을 느끼게 되는데 이 아픔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깥의 연에 닿아서 나타난 마음의 반응일 뿐이다. 하나의 마음도 관리를 잘못 하면 통제외의 손길을 벗어나 추하게 되지만 잘 조절하면 청정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깨달음에 든 사람도 있다.

실천의 길

너무나도 애욕이 많은 사람이 탐욕으로 가득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반성하다가 탐욕은 언젠가는 지혜의 불로 태워 없앨 수 있는 대팻밥이나 불쏘시개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 깨달음에 든 예도 있다.

“마음을 평안히 하라. 마음이 평안하면 온 세상이 모두 다 평안해진다.” 라는 가르침을 듣고, 이 세상의 차별은 보는 마음에 따른다는 것을 생각하여 깨달음에 든 사람도 있다. 정말로 깨달음의 인연에는 한이 없다.

제3절 신앙의 길

1.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귀의하는 자를 불제자라고 한다. 또 불제자는 다음에 설하는 계율과 믿음과 보시와 지혜를 갖고 있다.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을 뺏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 다섯 가지를 지키는 자가 부처님의 제자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것이 불자의 믿음이다. 불자는 욕심과

아까워하는 마음을 떠나서 남에게 베푸는 보시를 기쁘게 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 인과 연의 도리를 이해하고 모든 것이 변해간다는 도리를 아는 것이 불자의 지혜다.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나무는 반드시 동쪽으로 넘어지듯이 평생 불법에 귀를 기울이는 신심이 두터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목숨이 끝나도 불국토에 태어나게 되어 있다.

2.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삼보를 믿는 사람을 불자라고 했다.

부처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하고 복되게 하시는 분을 말한다. 법이란 그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을 말한다. 승가란 부처님과 그 법에 따라 바르게 수행하는 화합의 단체를 말한다.

불법승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분리된 셋이 아니라 하나이다. 불은 법에 나타나고 법은 승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셋은 그대로 하나이다. 그러므로 법과 승을 믿는 것은 그대로 불을 믿는 것이고 불을 믿으면 스스로

실천의 길

법과 승을 믿는 것이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오직 부처님을 염하는 하나만으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독자처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부처님을 생각하면 언젠가 부처를 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지는 항상 부처님께서 지혜로 거두어 주시고 저절로 부처님의 향기에 젖어든다.

3. 세상에서 부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없다. 만일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단 한 번이라도 믿어 기뻐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큰 이익을 얻는다.

그러므로 시뻘건 화염이 이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어야 한다.

정말로 부처님을 만나기는 어렵고, 그 법을 믿는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제 만나기 어려운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을 만나 듣기 어려운 이 법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크나큰 이익을 잃지 않게 부처님을 믿고 기뻐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인생이라는 긴 여로에서 믿음이야말로 가장 좋은 반려자요 청량제이며 더할 나위 없는 재산이다.

믿음은 부처님의 법을 받는 손이요, 모든 공덕을 받는 청정한 손이다. 믿음은 불이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더러움을 깨끗이 태워 없애고, 행자의 짐을 벗어주고 한걸음 나아가 부처님의 길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안내자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사람의 마음을 풍요하게 하고 탐욕과 두려움과 교만을 없애주며 겸손과 공경심을 가르친다. 이리하여 바깥 세상의 속박에 끌리지 않게 하며, 고난에 맞설 용기를 주고, 유혹을 이겨 낼 힘을 부며, 행동을 빛나고 밝게 해 주며 지혜로운 생각을 풍성하게 해준다.

믿음은 길이 멀어 지루할 때에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어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실천의 길

믿음은 항상 내가 부처님 앞에 있으며, 부처님에게 안겨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또한 믿음은 굳건하고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사람들에게 친숙해지는 덕을 길러준다.

5. 믿음이 있는 자는 귀에 들리는 어떠한 소리도 부처님의 법으로서 음미하고 기뻐하는 지혜가 얻어져 어떠한 사건도 모두가 다 인과 연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임을 알아서 정직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얻어진다.

믿음은 인생이 무상함을 깨닫는 지혜와 주위의 조건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인생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알아서 영고성쇠의 어떠한 변화에도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는 지혜를 길러준다.

믿음에는 세 가지 의미있는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자신이 지은 죄과를 참회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의 미덕을 보고 진실로 칭송하면서 기뻐하는 것이며, 셋째는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믿음에 있어서 이 세 가지 특성을 길러야

한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서 참회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미덕과 선행을 행하면 내 일처럼 칭찬하여야 하고, 또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 행동하며, 부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야 한다.

이 믿는 마음은 지성스런 마음이요, 깊은 마음이며, 부처님의 힘에 의하여 불국토에 인도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정화하여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고 다시는 미혹한 삶을 반복하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믿음의 힘을 주신다. 사람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부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칭송되는 말을 듣게 되면 부처님의 정토로 인도하신다.

6. 이 불심은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불성의 표현이다. 왜냐하면 부처를 아는 자는 부처이며, 부처를 믿는자는 부처가 아니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불성이 있어도 불성은 번뇌의 진흙 속으로 깊이 가리얏아, 성불의 싹이 터서 꽃을 피울 수는 없다. 탐냄과 성냄

실천의 길

이라는 번뇌의 회오리 속에 어찌 부처를 향하는 맑은 마음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나 부처님을 믿는 마음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에란다라는 독나무의 숲에는 에란다 싹만이 돋아나서 찬다나의 향나무는 생겨나지 않는다. 에란다의 숲속에 찬다나가 돌아난다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지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부처를 향하여 그를 믿는 마음이 생긴 것도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부처를 믿는 신심을 뿌리가 없는 믿음이라 한다. 뿌리가 없는 믿음이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믿음이 생기는 뿌리는 없으나,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 속에는 믿음의 뿌리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7. 믿음은 이처럼 존귀하고, 정말로 도의 근본이며 공덕의 어머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도를 구하는 사람에게도 원만하게 얻어지지 않는 것은 다음의 다섯가지의 의심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부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것.

둘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것.

셋째,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을 의심을 갖는 것.

넷째, 구도의 길에 종종 의심을 품는 것.

다섯째, 깊이 도를 구하는 사람들을 교만한 마음으로 의심하는 것.

실로 세상에서 의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이란 갈라놓는 마음이고, 우정과 좋은 사이를 떼어놓는 독이며, 서로 생명을 상하게 하는 칼날이며, 서로의 마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가시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얻은 자는 그 믿음이 먼 옛날에 부처님의 자비에 의하여 이미 그 인연이 심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가슴 속에 숨어든 의심의 어둠을 뚫고,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신 부처님의 자비의 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비를 기뻐하는 자는 믿음을 얻어, 먼 옛날에 부처님이 주신 깊은 인연으로 이 세상의 생활 그대로 불국토에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실천의 길

정말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도 어렵고,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힘써 노력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도록 해야 한다.

제4절 부처님의 말씀

1.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였다. 나를 비웃었다. 나를 때렸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 분노를 잊어야 분노가 사라진다.

지붕을 이는 방법이 잘못된 집에 비가 새듯이, 잘 닦지 않은 마음에 탐욕이 스며든다.

게으름을 피는 것은 죽음의 길이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은 삶의 길이다. 어리석은 자는 게으르고, 지혜있는 자는 노력한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깎아 곧게 하듯이, 현명한 사람은 그 마음을 바르게 한다.

들뜬 마음은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누르기 어렵지만 가라앉은 마음은 평온하다. 지혜롭게 이 마음을 안정시켜야만 평안함을 얻는다.

자신을 사악한 길로 유혹하는 것은 원수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탐욕에서 지키고, 성냄에서 지키며, 모든 나쁜일로부터 지키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이 얻어진다.

2. 말만이 아름답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것은 색깔은 좋고 향기없는 꽃과 같은 것이다.

꽃의 향기는 바람에 거슬러 풍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착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에 거슬러서도 세상에 퍼져간다.

잠을 못 이룬 자에게는 밤이 길고, 지친 자에게는 갈 길이 멀다. 바른 법을 모르는 자에게는 그 미혹과 고뇌의 시간은 길다.

실천의 길

먼 길을 가려면 자기와 같은 사람 혹은 더 나은 사람과 가는 것이 좋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라면 차라리 혼자서 가는 것만 못하다.

맹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나쁜 친구는 두려워 해야 한다. 맹수는 오직 몸만을 상하게 하지만, 나쁜 친구는 마음을 부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 자식, 이것은 내 재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 한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 어떻게 자식과 재물이 자기 것이겠는가!

어리석으면서 어리석음을 아는 자는 어리석으면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 보다는 낫다.

어리석은 자는 현명한 사람과 어울려도 마치 수저가 맛을 모르듯 현명한 사람이 나타내는 가르침을 알 수가 없다.

신선한 젖은 쉽게 굳어지지 않는 것처럼, 악행도 바로 그 과보를 나타내지 않으나, 재에 덮힌 불처럼 잿속에서 타면서 그

사람에게 따른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승진이나 명예와 이익을 갈망한다. 그러나 그런 욕망들은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며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다.

내 잘못과 불완전함과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나의 악을 비난하는 사람을 우러러 모셔라. 그는 나에게 보물이 있는 비밀장소를 가르쳐준 사람과 같다.

3. 좋은 가르침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져서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다. 가르침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냈기 때문이다.

목수가 나무를 곧게 다듬고, 궁사가 화살을 바르게 쏘며, 농부가 물도랑을 팔 때 곧게 내서 물을 순조롭게 흐르도록 하듯이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가다듬어 마음이 원만하고 진실하게 되도록 인도한다.

견고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현명한 사람은 비방과

실천의 길

칭찬에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을 이기는 것은 전장에서 천만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더 훌륭한 승리이다.

바른 법을 모르고 백 년을 살기보다는 바른 법을 듣고 하루를 사는 것이 더욱 훌륭한 일이다.

어떤 사람이든 만약에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능히 자신을 악으로부터 지켜라. 젊었을 때나, 한창 때나 혹은 늙은 뒤에라도 한 번은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

이 세상은 불타고 있다. 탐냄,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의 불로 타고 있다. 이 화택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도망쳐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

이 세상은 거품 같고 허공에 매달린 거미줄 같고 더러운 빈병에 담긴 오물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청정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4.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해 자신의 마음을 청정히 해야 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수이다.

참는다는 것은 이루기 어려운 수행 중의 하나이다. 그러니 잘 참는 자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

원한 속에 있으면서 원망하지 않고, 걱정 속에 있으면서 걱정하지 않고, 탐욕 속에 있으면서 탐내지 않아야 한다. 순수한 애타심을 갖고 살려면 내것이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몸에 병이 없는 것은 제일의 이익이고, 족함을 아는 것은 제일의 부이며, 신뢰가 있는 것은 제일의 친함이고, 깨달음은 제일의 즐거움이다.

악을 멀리하고, 고요함을 즐기며,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의 맛을 아는 자에게 두려움은 없다.

마음속에 좋고 싫어함을 일으켜서, 거기에 집착에서는 안된다.

실천의 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서 슬픔이 일어나고, 두려움과 속박이 생긴다.

5. 죄의 늪은 죄에서 생겨서 죄를 갚아버리듯이, 악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파멸시킨다.

경전이 있어도 성실하게 읽지 않으면 경전에 먼지가 끼고, 집이 있어도 손을 안 대고 방치하면 더러워진다.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면 몸과 마음이 더러워진다.

행동이 바르지 않으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인색하면 보시를 더럽게 하고, 악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더럽힌다.

그러나 이 더러움들보다 무서워해야 할 더러움은 바로 무명의 더러움이다. 이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으면 사람은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없다.

무지한 사람은 자칫하면 후안무치하게 되어 까마귀처럼 뻔뻔하고, 남을 해치고도 뉘우치지 않고 살아간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공경하고 남의 명예를 존중할 줄 알고, 집착을 떠나 생각과 행동을 맑고 깨끗하게 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렵다.

남의 잘못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은 좀처럼 시인하지 않으며, 남의 죄를 요란하게 사방으로 불고 다니는 사람이 자신의 죄는 노름꾼이 화투짝 감추듯 감춘다.

하늘에는 새와 연기와 폭풍의 자취가 생기지 않듯이 그릇된 가르침에 빠져서는 아무리 애써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허공과 같아서 안정된 것이 없지만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동요가 없다.

6. 기사가 성문을 견고하게 지키듯이 마음의 문도 안팎의 위험들로부터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한시라도 허술하게 해서는 안된다.

자기만이 진실한 주인이고, 자기만이 자신의 의지처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실천의 길

세속적 속박과 족쇄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마음을 다스려서 실 없는 말을 하지 말고 명상해야 한다.

태양은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비친다. 무사는 무장을 해야 빛나고, 도를 구하는 사람은 조용히 명상을 해야 빛난다.

눈, 귀, 코, 혀, 몸의 오관의 입구를 지키지 않고, 외계에 이끌리는 사람은 도를 닦는 사람이 아니다. 오관의 입구를 굳게 지켜서 마음을 철저히 단속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7. 집착이 있으면 그것에 도취되어, 사물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집착을 떠나면 사물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집착을 떠난 마음에 사물은 오히려 새롭게 보인다.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슬픔도 기쁨도 넘어서고, 선도 악도 없어져서 비로소 얽매임이 없어진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동경하여 부질없이 애쓰거나, 지난 날의 그림자를 쫓아 후회만 하고 있다면 베어놓은 갈대처럼 시들

어 버린다.

지나 간 일들을 후회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불행을 부질없이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현명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

과거를 쫓아서 안된다. 미래를 기다려서도 안된다. 오직 현재의 한 순간만을 굳세게 살아가야 한다.

오늘해야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확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가치있는 일이다. 당장 행하면 그것이 좋은 하루를 사는 길이다.

지혜는 훌륭한 안내자이고 믿음은 좋은 친구다. 깨달음의 빛을 찾아서 무지와 피로움의 암흑을 벗어나야만 한다.

심신을 잘 닦은 사람은 그것이 덕행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불제자의 신성한 의무이다. 믿음은 가장 든든한 재산이요, 성실은 가장 훌륭한 것이며, 공덕을 쌓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직무이다.

실천의 길

인생의 행로에서 믿음은 세상을 방랑하는 이의 양식이고, 공덕은 소중한 보금자리이며, 지혜는 낮을 밝혀주는 빛이며, 바른 생각은 야경꾼이다. 오욕이 없는 사람의 생활은 멀하지 않고, 욕망을 이겨야만이 무한한 자유를 누린다.

가족을 위해서 내 몸을 잊고, 내 마을을 위해서 내 집을 잊고, 나라를 위해서 고향도 잊으며, 깨달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잊으라.

모든 것은 변하며,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생과 멸을 떠날 수 있을 때에 고요함과 평안함을 얻는다.